

# ‘시항원 검출’ 무안 육용오리농장, 그늘막 가린 채 살처분

### 역한 냄새와 인근 축사서 간간이 소 울음소리만 반경 10km 이동제한 조치·소독차 9대 동원 방역

“며칠전 고흥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라야지요.”  
6일 오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전남 무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은 철저한 통제 속에 선제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었다.

마을과는 다소 떨어진 농장에서는 외부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검은색 그늘막 너머로 포크레인 등 살처분에 동원된 장비들만 분주히 움직였다.  
역한 냄새와 함께 간간이 인근 축사에서 들려오는 소 울음 소리는 긴장감을 더했

며, 농장 주위에는 방역차량이 오가며 하얀 소독제를 뿌려왔다.  
전남 무안에서 이날 검출된 AI항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서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지난 4일 고흥에 이어 옮겨올 우려가 있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농장에선 4개동 전체에서 H5항원이 검출됐지만 오리 폐사 증가나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대는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최근

5년간 반경 3km 이내 농가에서 2회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항원이 검출되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 6000마리와 500m내 양계농장의 닭 8만 마리 등 9만 6000마리를 선제적 살처분했다.  
또 항원 검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소독차 9대를 동원해 인근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0km 방역대 내 가금류(닭·오리) 사육 규모는 오리 16농가·28만 2400마리, 닭 31농가·217만 4700마리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된 A계열사 전체 농장과 인근 농장에 대한 신속·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AI항원이 검출된 무안의 육용오리농장은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고흥 육용오리 농가와 동일한 A계열사 농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선욱기자



**생산되는 요소수**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 10대 때부터 성인까지 ‘그루밍’ 범행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총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이를 뒤인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검찰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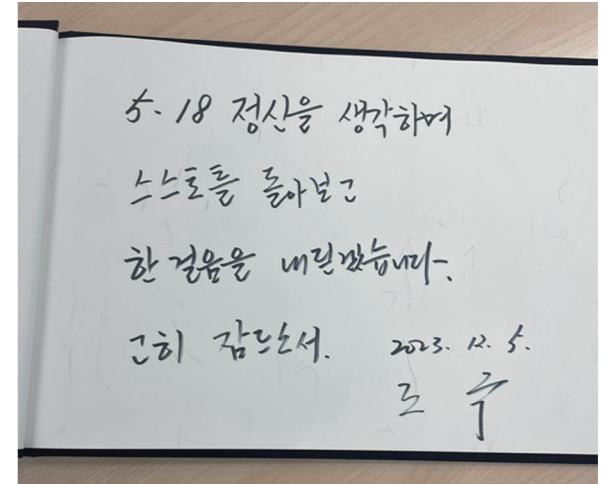
김수권기자

## 5·18 민주묘지 찾은 조국, 방명록에 맞춤법 실수

### ‘고이’를 ‘고히’로 잘못 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맞춤법 실수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5일 오전 9시쯤 조 전 장관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는 추모탑 앞에서 묵념한 뒤 묘역으로 이동,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50여일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조 전 장관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고히’는 ‘편안하고 순탄하게’라는 뜻의 ‘고이’의 오타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당시 5월 진행된 정부 주도 5·18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민주묘지 참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24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조 전 장관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삼가달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하고자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저서 ‘다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 잠드소서. 2023. 12. 5. 조국”  
“들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